이웃들과 따뜻한 겨울나기 농가주부들이 함께해요!

+ 일산농협 여성농업인봉사단체 ‘농가주부모임’

한겨울 추위가 거세질수록 이웃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일산농협 여성농업인봉사단체 ‘농가주부모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며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자원봉사자·농업인·주부, 1인 3역의 하모니

몸은 하나여도,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실로 다양하다. 일산농협 여성농업인봉사단체 ‘농가주부모임’(이하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나누는 자원봉사자이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인이자, 가정의 식탁과 행복을 책임지는 주부들이다. 2016년 2월에 창단해 현재 회원 수는 47명.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매달 지역의 노인복지관 두 곳을 주기적으로 찾아 목욕 및 급식 봉사를 해왔다. 철마다 고구마 캐기, 김장 나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만큼,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손을 보태고 농산물 판매를 돕기도 한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던 농가들에는 농가주부모임의 일손 돕기가 든든한 힘이 되었다. 농사일에 단련된 전문가들이 모였기에 농가들의 만족감도 높았다. 고양특례시의 대표 행사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일산지역 화훼농가가 출하한 꽃을 판매하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김영희

일산농협 농가주부모임 부회장(중산동)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저를 키워준 터전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일산농협 농가주부모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음이 큰 힘으로 이어져 일산을 더 따뜻한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

작은 나눔이 큰 행복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다. 요즘은 절임 배추가 잘 나와 예전보다 손쉽게 김장 봉사를 하지만, 초창기에는 일산지역에서 재배한 배추를 밭에서부터 가져와 소금에 절여가며 500포기나 되는 김치를 담그기도 했다. 몸은 고되지만 정성껏 담근 김치를 받은 지역사회 어르신과 취약계층 아이들이 전하는 ‘고맙다’는 인사에 매번 다음해 김장 봉사를 기약하게 된다.

지난 12월 9일, 농가주부모임은 섬김봉사단과 사랑농가주모, 사회적마을기업 행복찬방 등의 단체와 함께 일산2동에 일부 남아 있는 연탄난방가구들에 연탄을 배달했다. 손이 시릴 만큼 추운 날씨건만, 연탄과 함께 겨울을 따스하게 보낼 이웃을 생각하면 추위쯤이야 아랑곳없다는 이들이다.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새해맞이와 함께 다시금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에 마음이 분주하다. 이들의 따뜻한 행보가 기대된다.